



실업과 그 형태

- 1. 의의와 배경
- 2. 실업이론
 - 1) 마찰적 실업
 - 2) 자발적 실업
 - 3) 비자발적 실업
- 3. 실업의 존재형태
 - 1) 완전실업
 - 2) 불완전 취업
- 4. 실업의 종류
 - 1) 계절적 실업
 - 2) 경기적 실업
 - 3) 만성적 실업
- 5. 실업보험
- 6. 대 책



박 장 균
한진엔지니어링 전무이사

1. 의의와 배경

실업(失業: unemployment)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생업(生業)을 잃는 것, 즉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공급면을 표시하는 노동력 인구와 노동력의 수요면을 표시하는 고용인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능력과 노동의 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하려는 이른바 유효공급노동력이 노동력수급의 차질 때문에 고용기회(雇傭機會: job opportunity)를 발견하지 못하고 노동력(勞動力: labor force)의 유휴상태에 놓여있을 때 이를 실업이라 한다. 이와같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력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실업노동력의 존재는 가용생산 자원의 유휴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사회질서의 혼란이나 경제적·정치적 불안은 초래할 요소가 되기 쉬운 것이다. 더구나 빈약한 물적자원과 과도한 인구를 지니고 있는 조건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후진국에 있어서는 노동력과잉의 문제는 해결해

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원인이기 보다는 그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은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지만 고용기회의 창출은 생산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고용은 경제발전의 원인이기보다 그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정책에 의하여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해결책이 요청된다.

2. 실업이론

실업의 이론이 경제학의 일부로 취급되고 그 발생의 가능성과 대책이 이론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19세기 이래 정통학파의 경제학은 완전고용하의 경제상태만을 이론의 대상으로 하고 불완전고용하의 경제상태에서의 설명을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론이 생성된 배후에는 두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다.

그 하나는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해 낸다”라는 프랑스 고전파 경제학자 세이가 전개한 〈판로(販路)의 법칙〉에 의한 일반적 노동력 과잉의 부정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임금에 대한 노동의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주의자로 자본주의체제를 공격하고 계급투쟁의 이론을 수립한 〈das Kapital〉의 저자 마르크스(K. H. Marx:1813~1883)는 실업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자본을 원료·보조재료 및 노동수단에 투하하는 〈불변자본(不變資本:constant capital)〉과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가변자본(可變

資本:variable capital)〉으로 나누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전에 따라 불변 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기본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상대적 과잉인구〉 =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실업은 공황기에는 급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만성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실업의 존재형태는 유동적·잠재적·정체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an industrial reserve army)에 대해서 케인즈적 실업은 1930년대의 대불황기에 발생한 대량실업(大量失業:mass unemployment)을 의미하며 자본설비(資本設備:capital equipment)의 불완전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1883~1946)는 실업범주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2)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 3)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마찰적 실업(摩擦的失業)〉은 수요와 공급변화에 의한 단기간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계속적인 완전고용을 방해하는 제반 조절과정의 부정확성, 이를테면 어떤 고용으로부터 다른 고용으로의 이동이 약간의 지체없이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비정태적(非靜態的)인 사회에서는 언제나 직업간에 있어서 고용되지 않고 있는 어느정도의 인적자원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자발적실업(自發的失業)〉은 일반적으로 일할 뜻과 능력은 있으나 임금이 너무싸다고 하여 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법제·사회관습·단체협약을 위한 단결·변화에 대한 완만한 적응등으로 인하여 노동단위가 그 노동의 한계생산력에 귀속

될 생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지 않으려 한다든가 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비자발적 실업(非自發的失業)〉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유효수요(有效需要)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을 말한다. 임금재의 가격이 화폐임금에 비해서 다소 높을 경우에 그때의 화폐임금(貨幣賃金: money wage)으로 일하려고 하는 총노동임금과 그 임금으로 고용하려 하는 총노동 수요의 쌍방이 현재 고용량보다 증대될 때 존재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외에도 후생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창시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 C. Pigou: 1877~1959)와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영국의 경제학자 Hicks(J. R. Hicks: 1904~1989) 등이 실업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균형이론의 입장에서 고전화 이론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실업의 존재형태

실업의 원인이나 실업이론의 상이에 따라 실업의 존재형태는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우선 크게 나누어 완전실업과 불완전취업을 들 수가 있다.

1) 완전실업(完全失業: wholly unemployed)

일반적으로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현재 구직운동(求職運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사회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조사주간 동안에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시간의 일도 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완전실업자는 실업의 극단적인 경우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만 14세 이상자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기관 중 전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일기불순·대기(待機)·일시적 질병·구직단념·기타 사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한 자를 합한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하지 않고 구직하는 자〉 이외에도 〈일할 능력과 희망을 가진자〉를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2) 불완전 취업(不完全就業: underemployment)

취업은 하고 있으나 임금이나 노동시간등의 제조조건이 표준에 미달하여 전직(轉職)이나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상태를 말하나, 또한 노동자가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만한 직장이 아닌 자리에 취업한 상태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즉 완전실업은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고 있기는 하면서도 완전한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히려 실업의 범주에 속하는 취업상태이다. 불완전한 취업을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득·취업시간·계절별 취업자수의 차이·전직희망 내지 추가취업 희망 등이 있다.

(a) 〈취업시간기준〉에 의하여 불완전 취업을 파악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업시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b) 〈계절적 취업자수의 차이〉를 통해서도 불완전 취업, 즉 주로 계절적 측면에서 실업의 불완전 취업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c) 〈취업 의식면에서 전직 또는 추가 취업 희망자〉에 의한 불완전 취업자 추정의 방법도 있다.

불완전 취업은 그 종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불완전취업의 존재형태로는 취업시간이 통상의 취업시간 보다 짧으며

이러한 부분시간취업(part-time work)이 비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가시적 불완전 취업(visible under-employment), 취업시간은 통상시간 이하로 짧지는 않으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그일에 자신의 능력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위장 불완전취업(disguised underemployment)>, 생산성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이나 경제단위에 취업하고 있는 <잠재적 불완전 취업(potential underemployment)> 등이 있다.

제9차 국제노동통계 관계자 회의의 결의에 의하면 불완전 취업은 그들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취업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시간(全時間)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들의 직업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개선된 생산조건 아래서 일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때 취업자의 소득이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4. 실업의 종류

실업형태는 이 이외에 계절적·경기적·만성적 실업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1) 계절적 실업(季節的失業: seasonal unemployment)

불완전 취업의 일종으로서 산업의 계절적 변동에 의해 생기는 실업이다. 즉 농한기의 농민·제빙업 종사자 따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상품의 생산이나 수요가 한정된 산업에서 생기는 실업을 말한다.

2) 경기적 실업(景氣的失業)

경제·사회전체의 경기변동에 따라 불황기에 생기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실업형태이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서 생기는 전형적 실업형태이다.

순환적실업(循環的失業: cyclical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3) 만성적 실업

좀처럼 회복세에 오르지 않고 오래끄는, 즉 만성적불황(慢性的不況) 시기에 생기는 장기적이고 고율적(高率的)인 실업을 말한다.

경제불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됨에 따라 생겨나는 악성 장기적인 실업형태로서 자본주의적 경제의 구조적 변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구조적(構造的)실업> 혹은 <구성적(構成的)실업>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만성적 대량실업의 고정화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5. 실업보험

실업보험(失業保險)은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구제·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보험에 의하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手當)이 실업수당이다.

이 실업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가장 오랜 영국에서 일찌기 1911년 국민보험법의 제2부로서의 실업보험제가 실시된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 유럽 각국은 이에 따라 제1차 세계 대전의 불황기에 이를 많이 채용하게 되었다. 실업보험에 있어서의 사고(事故)인 실업이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갖는 노동자가 완전히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6. 대 책

이 실업의 대책으로서는 직업의 알선을 첫째로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次善策)으로 실업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가 채용된다.

근래에는 실업구제사업(失業救濟事業), 즉 실업대책(對策)사업에 있어서, 실업자에 대하여 주로 공공(公共)의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고용(雇傭)의 기회를 만들고 임금을 주어서 구제하려는 기능을 발휘하려는 사업이 있다. 각국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대책의 한가지로 실업기금(基金)제도(system of unemployment fund)가 있다. 즉 경제계의 불황에 즈음하여 사기업체가 침체하여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일반회계중에서 일정액의 실업기금을 적립하고 이로써 공공사업을 펼쳐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제도이다.

註: 산업예비군(Industrielle Reservearmee): 마르크스 경제학의 용어. 자본주의 사회의 고도화(高度化)에 수반하여 생기는 완전실업자·반실업자(半失業者)·요구호자(要救護者)등 자본의 수요에 항상 대응할 수 있게 형성된 과잉노동인구를 말한다.

전안



謹 賀 新 年

希望찬 甲戌年을 맞이하여

健康과 幸運을 祈願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月刊『電氣와安全』編輯委員 一同